





1953~

도쿄에 상경한 야나세 다카시는 미쓰코시 선전부를 퇴직한 후, 프리 만화가로서 독립합니다. 주간 아사히의 만화상을 수상한 「보보 씨」와 샷포로 맥주의 광고 만화 「맥주의 왕」 등을 그렸지만, 크게 히트하지 못하고,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무대연출, 잡지 편집, 텔레비전 출연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만능 탤런트라고 평판이 자자한 한편, 만화가로서는 오랫동안 무명인 채로 고뇌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자기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 「손바닥을 태양에」입니다.